

高麗梵鐘의 新例 (十二)

黃 壽 永

前 言

本誌第八卷 十一號(一九六七年 一一월)의「고려梵鐘의 新例」(十一)에서 民間소장의 在銘小鐘 一口와 無銘鐘 一口를 소개한 이후 약 一년반 이 지났다. 그사이 高麗梵鐘의 新例에 대하여서는 계속 注目하여 오던 出土後 관계 당국에 申告 또는 押收되어 現品이 서울 國立博物館에 保管된 비교적 大形品이 있어 그중 高陽郡 三川寺谷 發見品과 傳堤川 出土 在銘鐘①은 이미 發表되었고 또 다른 一例로서 一九六七年 十一月경 기도 楊平郡에서 在銘飯子와 같이 발견된 無銘品 一口②는 앞으로 소개 되리라고 한다. 그러나 이들 當局에 의하여 수습된 유품을 제외하고도 그사이 民間에서는 古物商을 중심으로 相當數가 매매되었는바 그들은 모두 一尺내외의 小鐘뿐으로서 각지의 寺址에서 出土된 것이다. 이들 최근 년의 新例 또한 아직도 全國을 橫行하는 古鐵蒐集人 또는 中間商人들의 손으로 주로 寺址에서 發掘轉賣된 것인바 필자가 現品을 조사할 수 있었던 計 十一口를 이곳에 소개하려 한다. 그중 在銘品은 오직 一口뿐이며 또 그중에는 總高 十五cm에 불과한 特小品도 포함되어 있다

(一) 在 銘 鐘

(1) 丁丑銘 靑銅小鐘① (圖版1)

全高 二三·五cm에 불과한 小鐘이나 端正한 형태를 갖고 각부 彫飾이 鮮明한 優品이다. 高麗鐘의 통식을 따라서 頂上에 甬과 隻龍이 일컫는 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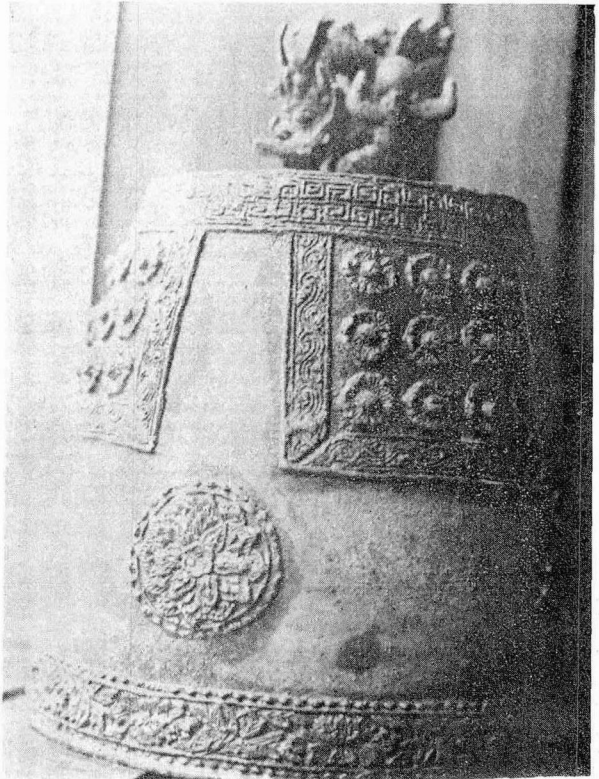


圖 1. 丁丑銘 靑銅小鐘 (1)

鈕가 있는데 甬筒上端에는 六珠가 둘러 있다. 鐘頂은 隆起가 없이 평평 하며 三角形立帶도 아니 보인다. 上帶는 二重의 雷文이 둘러졌으며 乳廓은 네곳에 큼직하게 배치되고 각 縱橫三列의 九乳가 낮은 凹顛形을 이루었는데 乳廓帶에는 細線의 唐草文이 사겨졌다. 鐘身下部에는 乳廓間 下를 띠하여 撞座二개와 飛天坐像 一軀가 交代하였는데 前者는 珠文圓圈안에 重瓣蓮花가 사겨졌으며 後者는 雲上에서 合掌하며 天衣를 머리 위에 날리고 있다. 下帶는 連珠帶를 上下에 둘러고 그안에 草花紋을 사겨는데 下帶幅이 上帶보다 좁은 것은 他品の 경우와는 正反되는 點이기도 하다.

銘文은 모든 新羅 高麗 兩代종의 既知例와는 달리 鐘身下端의 두께(厚)를 나타내는 圓帶위에 一行右行으로 다음과 같이 陰刻되어 있다.
(字徑二cm 楷書)

丁丑三月 日大師景鶴順奈納少鍾入金六斤四兩印

이에 의하면 丁丑三月에 大師인 景鶴과 順奈의 二人이 小鐘을 施納하였는데 그入重이 六斤四兩이라 하였다 그런데 이記銘이 字겨진 以外的 空白部分에는 다시 이記銘과는 反對向으로 「□□□戊戌 十二月」이라고 陰刻되었는데 初頭의 伏字部分이 丁丑銘의 첫머리와 重疊되었음을 볼수 있다. 아마도 丁丑銘은 戊戌銘보다도 後刻인가 한다.

위에서 形態와 彫飾 銘文을 모두 설명하였는데 丁丑年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대략 十三世紀 初頭(一一二七 高麗 高宗四年)로 比定할수 있을까 한다 그러나 상기와같이 以外에 또한 千支紀年인 戊戌年이 있으므로 丁丑보다 先行한다고 본다면 十二世紀 後半(一一七八 明宗八年)이 될 것이다. 出土地와 그 年月日은 모두 未詳이다 鐘身高 十七、三cm 上徑二二cm 下徑一七、一cm 厚一、八cm로서 全面에 青銹가 덮였으며 鐘體는 身高와 下徑이 近似値를 보듯 上狹下擴 되었다. 各部의 彫飾이 刻明하고 保存이 完전한 佳作으로서 一二〇〇年頃の 作으로 추정하여도 좋을 것이다.

(一) 無 銘 鐘

(2) 金潤氏藏 中鐘 (圖版2)

近年에 발견된 無銘小鐘중 크기와 樣式的 整齊함과 彫紋의 鮮麗함에 서 가장 주목할만한데 保存 또한 完全함은 多幸이다. 龍鈕와 鐘身에는 青綠銹가 모두 덮여있어 매우 아름답운데 出土에 관한 知見을 얻음을 수 없는 것은 애석하다.

甬筒은 中節三條가 있을 뿐 裝飾은 없으나 頂上은 六瓣花를 이루고 六圓珠를 배치하였다. 龍紐는 S字形으로서 龍頭는 鐘頂面에서 分離되었으 며 前足에만 捧珠한 것은 通式을 보이는데 龍頭의 조각이 細部에 이르 기까지 마련되고 鑄造 또한 우수하다 (甬高 十一cm)



圖 2. 金潤氏藏 中鐘 (2)

上帶에 接하여 立狀 蓮花紋帶가 돌려있으며 上下帶는 寶相唐草文을 사겼는데 그幅이 大差가 없다 (上二、八cm 下三、〇cm) 乳廓은 작아서 上帶에 接하였는데 雷文 帶를 돌렸으며 圓板中央에 降起한 縱橫各三의 九乳를 배치하였다. 撞座(徑五、五cm)는 四座로서 乳廓下 下帶에 近接하였고 圓內에 梵字 計九字를 사겨 단조로운데 이같은 梵字만의 撞座는 稀貴하다. 그리고 이撞座와 交代하면서 乳廓間 胴部에는 仰蓮座上에 結跏趺坐한 寶冠合掌의 菩薩을 一軀計 四軀를 高彫하였는데 坐高九、五cm이다. 樣式에 특이한 것은 없으나 端正한 姿態와 刻明한 彫紋 그리고 우수한 圓刻의 龍鈕 등에서 高麗 十二、三世紀로 추정되는 優品이다. 全高四二cm 鐘身高 二九、三cm 上徑 十四、五cm 下徑 二六、五cm 下厚 一、五cm 인데 身高와 下徑이 近似値를 보임은 또한 高麗鐘으로서의 양식을 따르는 것이다.

(3) 慶北大博物館藏小鐘

아마도當代作品으로서是最小品の 하나인데 大小五片으로破損된 것은 애석하다. 그러나 各部의 形式은 通型을 따르고 있어 龍鈕에는 甬筒이 있고 그頂上에 六珠를 돌렸다. 鐘頂을 돌아서 三角形의 蓮瓣立帶가 있으며 上帶는 唐草紋 밑에 連珠文이 있고 다시 그 밑으로 垂蓮紋이 있다. 上帶에서 分離된 方區의 乳廓은 넷이며 各九乳인데 周帶에는 唐草文을 사졌다. 鐘體의 乳廓아래로는 蓮花文 撞座를 乳廓間에는 雲上에 앉은 飛天像을 배치하였다. 下帶 또한 唐草紋인데 小品이나 彫刻이 섬세하다. 慶尙道出土라고 傳하는 下代의 作品이다. 總高 十七·五 cm 下徑 十·三 cm 上徑 七 cm

(4) 車明浩氏藏小鐘④

(3) 보다 더욱 작아서 높이 十五 cm 에 불과하며 下徑 九·五 cm 上徑 七·五 厚 〇·八—一·四 cm 이다.

이小鐘의 特異點은 龍鈕가 없고 鐘頂에 오직 圓環이 만들어졌을 뿐인데 이같은 簡化의 수법은 鐘體에 撞座나 飛天을 사가지 않았을 點에서도 볼수 있다. 그러나 鍾肩위에는 通式의 三角立帶가 둘러졌으며 上下帶는 雷文이다. 그리고 上帶에 붙어서 梯形의 乳廓이 네곳에 배치되고 各九乳를 달았는데 乳帶에도 또한 雷文을 사졌다. 形態나 彫飾에서 미루어 末期인 十四世紀의 作品으로 추정된다 (一九六七年十一月二十日 調査)

(5) 靑銅小鐘(圖版3)

通式의 小品으로서 龍身에는 前後로 뻗은 兩足이 달리고(右足捧珠)임에는 舍珠하였으며 甬은 貫通되었다. 鐘頂에 三角立帶가 있는데 一部는 缺落되었다. 上帶는 下帶와 同幅인데 모두 草花文이 細刻되었다. 四乳廓 各九乳인데 乳廓帶는 雷文으로 장식되었다. 鍾體에는 乳廓間에 圓形 六瓣의 蓮花文 撞座 二座와 立形의 華冠官服의 人物像 二軀가 交代하고 있다. 彫法이 다소 粗雜하나 形態는 아담하여 末期인 十三·四세기경의 작품으로 추정한다. 全高 二十五 cm 身高 十七·二 cm 上徑 十 cm 下徑 十·五 cm 厚 一·三 cm (一九六九年一月四日 調査)

(6) 靑銅小鐘(圖版4)

此品 또한 特小鐘의 하나로서 彫飾이 簡略한데 全面에 靑銹가 덮인



圖 3. 靑銅小鐘 (5)

出土品이다. 龍身은 細長한데 口に 舍珠하였으며 前肢는 缺하였다. 甬筒의 頂上은 方形을 이루고 各隅에는 一珠씩이 놓이었는데 四節로 區分된 筒身에는 唐草文이 사겨졌다. 三角立帶는 通式을 따른 것이며 上帶는 他例에서 볼수 없는 方區內의 橢圓紋으로써 하였다. 四乳廓 各九乳인데 乳는 重圈으로 돌렸으며 乳帶는 雙線으로서 區劃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乳廓間의 鍾體下部에는 重圈內의 蓮花八瓣文 撞座 二個와 坐形의 飛天像 二軀가 交代되고 있는데 모두 線刻으로서 形式에 흐르고 있다. 下帶와는 上帶와는 달리 唐草紋으로써 하였다. 鍾體가 上狹下張되었는데 彫法에서 보아 下代인 十四세기경의 作品으로 추정된다. 全高 十九·三 cm 鐘身高 十四 cm 下徑 十二·五 cm 甬高 五·五 cm 厚 一 cm (一九六九年四月十日 調査 서울 尙古堂)

(7) 靑銅中鐘(圖版5)

이곳 無銘鐘 十口중 (2)의 金潤氏鐘과 더불어 最大의 것으로서 忠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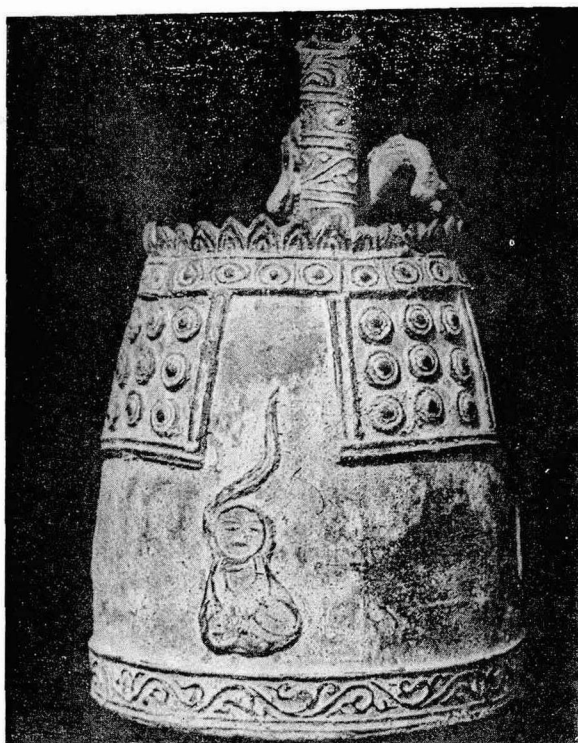


圖4. 青銅小鐘 (6)



圖5. 青銅中鐘 (7)

鐘川出土라고 전하는데 鐘體에 擦傷이 있고 下緣이 小缺된 以外는 完全하다. 鐘頂은 平坦하고 三角立帶가 아니 보인다. 龍鈕의 甬筒(高十一·八cm)은 特長하고 無節인데 格子點文이 사겨졌으며 雙龍은 舍珠하고 前肢에 捧珠하였다. 彫飾은 上下帶와 乳帶가 모두 唐草文이어서 單調로운 느낌을 주는 하나 彫刻이 유려하다. 四乳廓에 各九乳가 배치되었다. 그리고 이들 乳廓下에는 圓形撞座와 飛天立像 二軀가 交代하였는데 특히 撞座(徑七·八cm)는 커서 밖으로 珠文帶를 돌리고 안으로 花文帶와 五粒珠를 사졌다. 全面에 青鏽가 덮였는데 形態가 端正하고 鑄造가 우수한 優品이다. 十二世紀頃으로 추정되는데 全高 四十cm 上徑 十七cm 下徑 二十四cm 鐘身 二十六·六cm 이다. (一九六九年 四月 九日 調査 서울 藝古堂 소장)

(8) 慶熙大博藏 小鐘 (圖版 6)

全高 二十二·四cm 에 불과한 小鐘으로서 特記할만한 것은 없으나 龍

頭와 鍾身이 完全한 고려 下代小鐘이다. 甬頂 方板四隅의 各一珠도 이 미 他例에서 본바이며 三角形 立狀帶와 上下帶의 雷文과 上帶에 接한 四乳廓 各九乳의 樣式도 通式을 따르고 있다. 撞座는 乳廓間下에 圓形 二座가 對置되었는데 外唐草文 內蓮花紋을 사졌으며 이와 交代하여 또 한 乳廓間下에 合掌結跏趺한 菩薩坐像이 一구 배치되고 있다. 鍾身高 十五cm 에 대하여 下徑 十四·五cm 로서 거의 同大임은 또한 年代의 降下를 말하고 있다. 上徑 九·八cm 撞座徑 四·二cm 으로서 近年에 出土된 것인데 그 경위는 알 수가 없다.

(9) 東國大博 小鐘 (其一)

甬과 龍頭가 全缺된 現高 一一·八cm (立狀帶除外 一〇·七cm) 의 小鐘으로서 작으나 高麗 下代鐘으로서의 通式을 지니고 있다. 上緣을 돌아서 如意頭文立狀帶가 있고 上帶는 雷文이며 이에 接하여 四乳廓 各九乳인데 乳廓은 二條線으로 하였고 乳는 八瓣蓮座위에 降起되었다. 鍾身に



圖6. 慶熙大博物館藏 小鐘 (8)

는 乳下에 圓形蓮花文撞座(徑二·二cm)가 各一씩 四座 배치되었으며 乳間下에는 合掌結跏趺한 菩薩坐像이 各一씩 四구가 있어 撞座와 交代되었는데 모두 彫刻이 粗雜하다. 下帶에는 上緣에 連珠文一條를 둘러고 雷文을 사졌다. 全面에 綠鏽가 덮여 있는데 鐘身上面 乳間에 크기 一·五cm의 方孔이 뚫리고 곳곳에 歪曲面이 보이는 이외는 完全하다. 鍾頂에 〇·五cm의 小圓孔二개가 나란히 남아있는 것은 甬과 龍頭를 위한 것이다. 上徑 六cm 下徑 一〇·七cm 厚 〇·七~一·〇cm, 鍾身高와 下徑이 一致함은 또한 그 下代作임을 보이는 것이다. 一九六六年 江華出土라고 전한다.

(10) 東國大博 小鐘(其二)

其一의 小鐘과 같이 甬部만이 없었을 뿐 아니라 頂部가 全缺되었다. 上帶(幅 一·二cm)는 方區內 對角線文이 돌렸으며 이에 接하여 四乳廓各九乳인데 乳帶가 넓고 菱形文이 사겨졌고 乳는 座板없는 圓粒形이다.

鍾腹에는 乳廓間마다 撞座(徑 四cm) 二座와 菩薩立像(高 六cm) 二구가 交代하였는데 前者는 八瓣蓮花文으로서 內圓에도 八瓣蓮花文이 보이며 後者는 合掌하였다. 下帶(幅 二·六cm)는 上下單線안에 細線의 唐草紋을 사졌다. 全面에 아름다운 綠鏽가 덮였는데 彫刻은 樸拙하며 鑄造 또한 粗雜하다. 年代는 고려 下代인 十四世紀頃으로 추정한다. 現高 一五·五cm 上徑 七·八cm 下徑 十三cm 厚 一cm이다. 出土地 未詳인데 近年의 發見品이다.

(11) 東國大博 小鐘(其三)

全高 十七·五cm의 小鐘인데 甬筒은 上缺貫通되었으나 龍頭는 없고 오직 捧珠한 前足(四爪)만이 남아있다(龍頭는 乳廓方向) 낮은 三角立狀帶가 있고 上帶(幅 一·〇cm)는 波狀文이다. 上帶에 接하여 네곳에 乳廓이 있고 各九乳인데 이 乳廓은 身高에 比하여 작다. 圓形撞座(徑 二·五) 四座는 乳廓間 下部에서 그리고 坐像 四구는 乳下의 下帶 가까이에서 交代되었다. 이외에 두곳에는 長方形의 樂器(?)形이 사겨졌다. 下帶는 上帶와 같이 波狀文이다. 鍾體는 곳곳에 綠鏽가 덮였으며 검은 색을 나타내고 있다. 작으나 各部樣式이 구비된 小鐘인데 彫刻은 유려하지 못하다. 上徑 七·八cm 下徑 十二·五cm 厚 一·二~一·五cm이다 製作年代는 十四世紀頃으로 추정한다.

註

- ① 鄭良謨·三川寺을發見 靑銅梵鐘及一括遺物(考古美術)九一一、一九六八·二 崔淳雨·堤川發見乙巳銘銅鐘(考古美術)九一八、一九六八年 八月)
- ② 總高 七〇·五cm 鍾身高 四八·五cm 口徑 四〇·五cm의 通型의 大鐘으로서 貞祐 十年 丙午銘 飯子가 伴出되었다.
- ③ 이 小鐘과 같이 徑 三三·五cm의 「庚申年 七月 日清州」 飯子一口가 伴出되었다고 한다.
- ④ 이 小鐘은 干支銘(戊子)이 있는 靑銅香垆와 같이 江原道 原州의 法泉寺址에서 出土되었다고 한다. 拙稿 「高麗在銘香垆의 新例二座」(考古美術)八一、一九六七年 十一月) 參照
- ⑤ 李洪根氏藏小鐘(高麗梵鐘의 新例)三 考古美術 二卷一號 一九六一年一月)과 本稿 無銘鐘(6)